

연구노트

- GSIS, 성 인지 통계정보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었나?
전 기 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센터장
- 미혼모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해외입양
이 미 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남성의 균형적 삶을 위한 젠더의식 개선방안
이 수 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GSIS, 성 인지 통계정보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었나?

전 기 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센터장

성 인지 통계 전문DB에 대한 수요 증대

성별영향평가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성 주류화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 지원형 성 인지 통계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2004년 시범사업과 더불어 본격 시행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사업의 경우, 참여대상 기관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참여기관과 과제수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2004년 9개 기관 10개 과제로 출발한 성별영향평가사업의 경우, 2008년 현재 294개 기관에서 총 1,531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한정원 외, 2008). 또한 2010년 본격 시행되는 성인지예산제도의 경우, 주요 국가사업의 성별 수혜자 분석을 포함하여 성인지예산서 작성 공무원들이 성 인지 통계를 생산, 활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성 인지 통계 전문DB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성 인지 통계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전기택 외(2008)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별영향평가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연구자 등은 성 인지 통계 콘텐츠 개발 및 확대를 위한 우선과제로 각 급 행정기관의 성 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과 더불어 성 인지 통계 전문DB의 구축 및 운영을 지적하였다(전기택 외, 2008). 이러한 조사 결과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웹 기반의 성 인지 통계정보 전문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수요와 그에 대한 충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08년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의 주요 사업 결과

이와 같은 성 인지 통계 전문DB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06년부터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 사업을 통해서는 전체 사업 기획, 국 단위의 주요 통계 지표를 DB화한 『여성통계DB』, 성 인지 통계 정보 시스템 국문 웹페이지 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다(<http://gsis.kwdi.re.kr/>) 그리고 2007년에는 기 구축한 『여성통계DB』의 시계열 확장을 포함한 수정, 갱신 작업과 더불어 성 인지 지식정보자원구축 사업을 통해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수준의 성 인지 통계를 제공



하는 ‘지역 성 인지 통계DB’ (<http://gsis2.kwdi.re.kr/>) 구축 및 하드웨어 도입을 통해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제3차년도인 2008년에는 성 인지 통계 정보시스템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여성통계DB 구축, 성 인지 통계정보시스템 영문 웹페이지 개발, 성 인지 통계DB 영문화와 함께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지도로 보여주는 지역별 성평등지수 서비스 시스템 구축, 국문 웹페이지 리뉴얼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성 인지 통계와 GSIS를 홍보하는 국문과 영문 홍보동영상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직관적인 통계DB 검색 화면 구성, ‘마이 페이지’ 기능 구현 등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더불어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성 인지 통계 수요 파악을 위한 기초 환경을 구축하였다.

2008년 사업을 통해 새로이 구축된 국문 웹페이지의 주요 메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GSIS 소개에서는 성 인지 통계의 이해,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안내, 홍보 동영상상을 제공하여 성 인지 통계와 GSIS 사업 일반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그리고 성 인지 통계DB에서는 전국 단위의 여성통계DB, 지역 성 인지 통계DB, 국제 성 인지 통계DB의 통합 검색이 가능하고, 도표로 보는 성 인지 통계 등 그래픽 중심의 성 인지 통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통합검색에서는 검색어를 이용한 통계DB의 검색이 가능하고, 검색 및 내려받기 등 활용도가 높은 통계지표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외에 정보마당에서는 성 인지 통계 관련 소식, 국내외 관련 사이트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마당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성 인지 통계 간행물과 조사통계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내외의 성 인지 통계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성 인지 통계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자마당에서는 성 인지 통계에 대한 사용자 문의, 온라인 설문, 이용자 게시판, 도움말 등을 통해 성 인지 통계 및 GSIS에 대한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이용자가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는 마이페이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마이페이지 메뉴를 통해 이용자가 즐겨찾는 통계와 최근 이용한 통계 목록을 작성,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조사통계 원자료를 신청하여 활용할 수 있다.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의 향후 과제

지난 3년간의 사업을 통해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은 전국, 지역, 국제 수준의 주요 성 인지 통계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하였다. 향후에는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 대상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보급을 통해 성 인지 통계 정보시스템의 확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성별영향평가사업, 성인지예산사업 담당 공무원을 지원하는 성 인지 통계DB 구축 등을 통해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의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시스템 확산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민 체감형 성 인지 통계정보의 개발 및 확산을 통해 일반 국민의 여성정책 체감도와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통해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함으로써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1〉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국문 웹 페이지 메인 화면



*자료 :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http://gsis.kwdi.re.kr/>)

〈그림 2〉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영문 웹 페이지 메인 화면



*자료 :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http://gsis.kwdi.re.kr/>)

〈그림 3〉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 마이페이지 서비스 화면



*자료 : 성 인지 통계정보 시스템(<http://gsis.kwdi.re.kr/>)



미혼모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해외입양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해외입양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이나 해외입양에 의존하지 않는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정책적 차원에서 해외입양에 대한 제1의 대응방안은 국내입양 활성화였다.

세계 최대 규모로 해외로 입양 간 아동들의 어머니 대다수가 미혼모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의 문제점과 감축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이들의 존재는 거론되고 있지 않다.

단계적으로 “친부모에 의한 자녀 양육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입양을 고려하는 것인데, 우리사회는 친어머니가 자녀를 입양으로 포기하지 않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동안 너무 소홀하였다. 한편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자녀양육 지원의 미비로 해외입양은 계속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모순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삼돌, 2008).

미혼모와 이들의 자녀는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방치되었다. 입양이라는 사건은 친어머니에게는 평생 지고 갈 고통과 죄책감을 그리고 입양인에게는 평생 뿌리와 정체성 찾기라는 무거운 과제를 안겨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의 입양과 관련된 역사와 현황을 검토하고 해외입양의 대안으로 국내입양에 앞서 미혼모 지원 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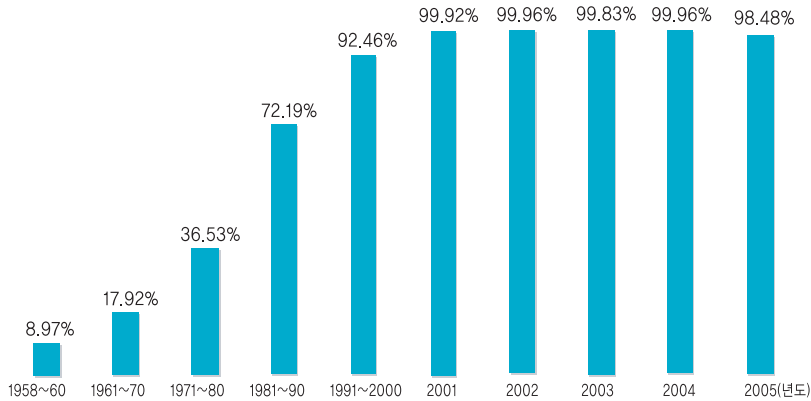
아동복지의 제1원칙은 친가족과의 결별 방지

입양은 친부모에 의한 자녀 양육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 기관보호, 가정위탁양육과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대체적 보호 방식의 하나로 이들 대안적 양육방식 중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Lee, 2007). 입양은 법적·사회적 과정을 통해 혈연관계가 없는 아동을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입양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입양아동과 양부모가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면 ‘합법적인’ 가족이 된다(권지성, 2003; 우병창, 2001).

입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친부모는 친자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입양 부모에게 주어진다.



〈그림 1〉 해외입양아 중 미혼모 자녀 비율



*자료 : 재외동포재단, 2006 국외입양인 백서

입양은 요보호 아동에게 안정적 가정을 제공하는 하나의 복지수단이지만, 입양에 앞서 해당 사회는 아동이 친부모와 결별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요보호 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원칙을 보면 아동의 친가족과의 결별을 막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부모의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을 격리한 경우 아동이 다시 부모와 재결합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불가능 하면 다른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미국사회의 원칙이다(Schuerman, 1997; 배태순, 2000에서 재인용).

1993년 해외입양과 관련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헤이그협약에서도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각국은 아동이 그 가족의 보호 아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아동이 친가족과 결별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는 원칙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80년대 이후 해외입양아 대다수가 미혼모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미혼모 자녀가 가족과 결별하지 않고 살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은 저조했다. 해외입양에 대한 문제점과 국내 입양 활성화의 중요성을 논의하면서도 미혼모 양육지원에 대한 적극적 논의는 거의 없었다.

해외입양과 이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어서 타인종 가족에게 아동이 입양되는 역사는 길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입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의 알선으로 지리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상이한 사회로 아동이 입양되는 관행은 6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반세기를 넘는 국제입양의 역사에서 한국이 차



지하는 비중은 독보적이다. 지난 50년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자국 영토 밖으로 입양 보낸 국가이고 미국은 가장 많은 수의 아동을 자국 영토 밖에서 받아들인 국가이다. 한국아동의 해외입양은 단일 국가 출신의 아동들이 세계 최대 규모로 국경을 넘어서 타인종 사회로 이주한 사건이다(Choy, 2007).

1953년부터 2008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한국 아동의 총 수는 162,756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사례를 집계한 것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같은 기간 보건복지가족부가 집계한 총 국내입양아 수는 71,633명이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해외입양인연대를 포함한 몇몇 단체에서는 20여만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의 통계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 입양 때문이다(이삼돌, 2008).

미국 국무부 공식 통계에 의하면 1948년에서 2004년 사이에 총358,538명의 해외입양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유럽과 오세아니아에 입양된 14만에서 15만 명을 더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총 49만에서 50만 건의 해외 입양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이삼돌, 2008). 이 중 한국아동이 해외입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3 수준에 달한다.

해외입양에 대한 맹렬한 비난은 북한과 서구에서 진행되었다. 1970년대 전반 북한은 남한이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 아기를 서양인에게 팔아넘기고 있다고 하며 가난한 남한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은 아이들뿐이라며 맹렬히 비난하였다(이삼돌, 2008).

해외입양에 대한 서구 언론의 비판은 역사상 최대 규모로 한국아동이 입양 보내지던 1980년대에 최고조에 달하였고,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에 즈음하여 최고조에 달한다. 한국이 서울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을 때 서구의 언론들은 한국이 “아기 장사(baby selling)”를 한다고 맹비난하였다(이삼돌, 2008; Rothschild, 1988). 이러한 비난은 한국사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한국정부는 매년 해외입양아 수의 쿼터를 두고 장기적으로는 해외입양을 감축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입양아 수는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나 해외입양은 작지 않은 규모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입양인의 정체성 혼란과 뿌리 찾기

입양인들을 한국에 연결해주는 것은 이들이 경험했던 미국에서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 백인문화에서 산다는 부정적 경험, 아시아인의 모습으로 백인 가족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이들의 어려운 과거이다(표, Kim, 1997). 많은 입양인들은 미국에서 차별을 받고,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러한 한국인 입양인으로서 과거의 기억을 파헤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들에게 “한국적 정체성”의 형성은 입양과 관련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집단적으로 풀어 놓고 공유하면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입양인들의 다양한 네러티브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입양인들은 “왜 나의 부모는 나를 키울 수 없었는가?”, “왜 나는 외국에 보내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어릴 때부



터 한다(H. Kim, 2007). 많은 입양인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자신의 잃어버린 부분을 찾고 싶다고 두려움이 깃든 마음으로 말한다고 한다(E. Kim, 2007). 정체성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그 과정에서 느끼는 혼란을 해결하는 가운데 어린 시절 경험했던 복합적 메시지를 풀어내려는 것이다(Hurdis, 2007). 한 입양인은 “나의 정체성, 인종,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여인에 대한 가슴앓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종주의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털어 놓는다(Hudis, 2007).

한 입양인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혼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내가 진짜가 아닌 것 같은 느낌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내가 양육된 대로 백인으로 느껴지지도 않았고, 외모상으로 보이는 아시안으로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Bruining, 1997).”

선진국으로 입양되어 갔다가 한국을 방문하는 입양인들은 자신들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에 대해서 불편해 한다(E. Kim, 2007). 이러한 시선에는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애쓰는 가족, 소속감, 역사를 잃은 아픔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입양으로 인해 미혼모가 경험하는 상실의 고통

80년대 말부터 해외입양인들이 한국을 찾으면서 이들의 존재가 가시화되고 해외입양과 관련된 성찰이 시작된다. 입양인들의 친가족 찾기가 소개되고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 이야기를 집단적으로 토해내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 해외입양과 관련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의 주요한 축을 구성하는 당사자인 입양인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이들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별로 없다. 우리는 이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하여 이들은 숨겨져 있다.

미혼모 자녀의 입양은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이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기 전에 서구사회에서도 존재했다. 최근에 호주와 미국, 네덜란드 등의 서구국가에서 과거 자녀를 입양 보냈던 어머니들이 입양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책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이삼돌, 2008). 이들은 자신의 부모와 가족, 사회복지사, 입양 기관, 종교 단체로부터 아이를 포기하도록 강요받은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이삼돌, 2008; Fessler, 2006). 또한 입양인들의 권리 운동을 전개하고 동시에 기관에는 입양과 관련된 밀봉된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친부모, 입양인, 입양부모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공개입양을 옹호한다(이삼돌, 2008).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한국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는데, 이들의 친어머니들은 아기를 포기하는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평생을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다.

해외입양의 대안 모색: 미혼모 자녀양육 지원



해외입양 그리고 해외입양의 대안을 논의할 때 미혼모가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의 미혼모들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미혼모와 관련된 최근의 주요변화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적 관심과 개입의 시작은 바로 이 지점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입양 보내지 않고 스스로 키우려는 미혼모를 지원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 망설이는 미혼모에게 아동양육 지원이 보장된다면 양육 미혼모의 비율은 매우 증가하고 입양 보내는 미혼모는 감소할 것이다.

한국은 미혼모의 자녀양육 포기를 소홀히 하고 외면할 만큼 여유 있는 사회가 아니다. 출산율은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크게 감소하여 세계 최저 1-2위를 다투고 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상정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출생아가 어머니의 혼인상태에 따라서 차별받도록 내버려둘 만큼 여유가 없다. 미혼모와 그들의 자녀양육 지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영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외입양의 대안으로 미혼모의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적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한국사회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해외입양은 종식될 것이다. 해외입양에 대한 논의에서 미혼모와 미혼모 자녀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서 미혼모 양육을 복지체계 내에서 지원하면서 미혼모 자녀의 입양을 중단시켰던 선진국들의 길을 한국도 가야한다.

참 · 고 · 문 · 헌

- 권지성, 2003.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입양홍보회 참여가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배태순, 2000. "해체된 가정의 아동들, 그들은 어떻게 보호되고 있나:국내 해체가정의 아동보호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9호, pp.227-246.
- 우병창, 2001. "가족법상 입양에 관한 연구 : 양자법의 개선을 위한 현행법의 검토와 입법론 제언", 『가족법연구』, 제 16권 2호, pp.169-202.
- 이삼돌, 2008. 『해외입양과 한국민주주의: 한국대중문화에 나타난 해외입양과 입양 한국인의 모습』 뿌리의 집 옮김. 소나무.
- Bruining, Mi Ok, 1997. "A few words from another left-handed adopted Korean lesbian" edited by T. Bishoff & J. Rankin, Seeds from a silent tree: An anthology by Korean adoptees. Glendale, CA: Pandal Press.
- Choy, Catherine Ceniza, 2007. "Institutionalizing International Adoption: the Historical Origins of Korean Adoption in the United States"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 Fessler, Ann, 2006. The Girls Who Went Away: the Hidden History of Women who Surrendered Children for Adoption in the Decades before Roe v. Wade. Penguin Books.
- Hurdis, Rebecca, 2007. Lifting the Shroud of Silence: A Korean Adoptee's Search for Truth, Legitimacy, and Justice,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 Kane, S, 1993. The Movement of children of international adoption: an epistemological perspective, the social Science journal 31(4): 323-339.
- Kim, Eleana, 2007. "Remembering Loss: the Koreanness of Overseas Adopted Koreans"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 Kim, Hosu, 2007. "Mothers without Mothering birth Mothers from South Korea since the Korean War"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 Lee, Bong Joo, 2007. "Recent Trends in Child Welfare and Adoption in Korea: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in International Korean Adoption: A Fifty-Year History of Policy and Practice, edited by K. J. S. Bergquist, M. E. Vonk, D. S. Kim, and M. D. Feit, New York: The Haworth Press.
- Rothschild, M, 1998. "Baby for Sale, South Korean Make Them, American Buy Them" Progressive 52(1): 18-23.



남성의 균형적 삶을 위한 젠더의식 개선방안

이 수 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재가 많은 남성들이 느끼듯 ‘여성상위시대’라고 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 남성의 위기의 시대임에는 분명하다. 이는 남성들이 주장하듯이 남성의 권력이 축소되었거나 여성과의 위치가 역전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남성들은 여전히 주류이고, 지배층이고, 권력의 담지자이다. 그럼에도 남성들은 스스로 위기를 주장하고 또 느끼고 있다.

남성 위기의 원인은 세상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은 아니다. 구조의 측면에서 세상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구조를 이루는 개인들의 의식과 가치관은 변해가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이어 감성우위사회로 들어오면서 남성적인 속성과 여성적인 속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고 이상적인 남성성, 남성과 여성의 관계, 남성의 역할 등에 대한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데 남성들은 오래된 구조와 새로운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자들은 남성들이 젠더의식과 관련하여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현재 사회에서 규정하는 남성성이 사회구조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모순적이고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많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성규범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임을 역설한다. 그리고 성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더 심한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위반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들을 이상적인 남성성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이는 남성들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감, 갈등, 우울증, 폭력적 경향을 보이게 한다고 한다.

본 연구는 남성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젠더의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전제하에 새로운 젠더의식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의식전환을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젠더의식이란 남녀의 특성, 역할 그리고 양성 간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나 태도를 말한다. 연구자들은 남성의 젠더의식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측정하여 남성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젠더의식의 측면을 밝히고 남성들이 좀 더 긍정적이며 생산적인 젠더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방법론으로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인터뷰 등이 있다. 현재 설문조사의 예비조사 후 본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남성의 젠더의식과 관련하여 남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Harrison은 1. 여성과 달라야 하는 욕구 2. 여성보다 우월해야 하는 욕구 3. 독립적이고 자기의존적이어야 하는 욕구 4. 타인보다 더 힘이 세어야 하는 욕구(필요하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를 남성 젠더의식의 기본적 속



성으로 보고 있다. O'Neil은 감정적 구속성, 애정표현구속, 그리고 성공 집착을 드는데 감정적 구속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정서와 애정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삶의 복잡한 감정적 차원을 이해하고 통합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말한다. 애정표현 구속성은 타인에 대한 애정이나 따뜻한 마음 등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경향을 말한다. 성공집착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직업적 성공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남성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조사도구들이 개발되었다. 그 중 지금까지 많이 쓰이는 것들은 남성역할조사(Male Role Inventory: Snell, 1986), 젠더역할갈등척도(Gender - Role Conflict Scale: 1986, O'Neil et als.), 그리고 남성성역할스트레스척도(Male Gender Role Stress Scale: Eisler and Skidmore, 1987) 등이 있다. 남성역할조사는 성공 집착, 감정 억제, 애정 억제의 세 구인을 가지고 30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를 개발할 당시 조사에 따르면 남성성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1)타인에 대한 애정, 부드러움 등의 감정을 억제하고, (2)감성적 느낌을 억제하며, (3)개인적인 것이나 개인과 무관한 사항에 남자/여자 친구에게 자기표현을 억제함으로써 성공적인 경력을 달성하려는 강박감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성역할갈등척도는 성역할갈등척도I(GRCS-I)와 성역할갈등척도II(GRCS-II)로 이루어진다. 성역할 갈등은 6패턴과 4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6패턴은 1. 감정적 구속성 2. 호모포비아 3. 사회화된 통제, 권력, 경쟁 4. 성적, 감정적 행동의 구속성 5. 성취와 성공에 집착 6. 건강관리 문제이고 4차원은 인지, 감정적 경험, 행동, 그리고 무의식적 경험이다.

이 중 GRCS-I는 원래 85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성역할 태도, 행동과 갈등을 6점 리커트 척도로 스스로 측정하는 척도이다. GRCS-II는 척도의 조건에 부합하는 37문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성공, 권력, 경쟁(13문항); 감정적 구속성(10문항); 남성들 사이의 감정적 행동 구속성(8문항); 그리고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6문항)의 4요인으로 이루어진다. GRCS-II는 16문항으로 4요인-성공, 권력, 경쟁(6문항); 호모포비아(4문항); 감정적 반응 부재(3문항); 성역할 이탈로 인한 당황감(3문항)으로 이루어진다.

남성역할스트레스척도(MGRS)는 '남성 성 역할 사회화'가 남자들이 특별한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한, 남성 성 역할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새로운 척도이다. 이 척도는 남성의 성 역할과 관련된 인지, 행동, 환경적인 사건들로 구성되어진다. 요인분석을 할 경우 (1) 육체적 무능 (2) 감정적 표현의 어려움 (3) 여성에 대한 복종 (4) 지적 열등감 (5) 일과 성관계에 대한 실패 등과 같은 5가지 성분으로 나누어진다. MGRS 점수는 실증적으로 전통적인 형태의 남성성과 MGRS가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며 '분노'와 '억제'이라는 두 가지 스트레스 요인과 MGRS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통적인 남자 성 역할에 근거해서 MGRS는 남자들이 남자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여자다워 보일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척도와 한국에서 행해진 남성연구를 바탕으로 남성의 젠더의식과 남성의 정신적 건



연구노트

강 및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문항은 한국형성평등의식조사 축약형 40문항, 성평등 행동에 대한 주변의 압력을 묻는 10문항, 성별역할갈등스트레스 82문항, 인지된 스트레스 10문항, 영역별(재정, 부모역할, 결혼/애정, 일/직장, 건강) 스트레스 15문항, 자기만족감 10문항, 삶의 만족도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예비조사를 끝내고 본 조사 중에 있다. 예비조사 결과 서구의 선행연구에서처럼 요인들이 묶이지 않아 남성역할갈등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지 흥미롭게 주목하고 있다.